

靈山作法 연구

장휘주(서울대학교)

머리말

靈山作法은 불교의식 중 齋에 포함돼 있는 단일 의식이고, 齋는 영혼천도 의식 齋_靈이다. 영산작법은 석가모니불의 영취산 설법모임을 재현한 것인데, 대승불교의 법화사상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영산작법은 오늘날 佛家에서 전하는 5종의 齋의식 중 유일하게 영산재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영산작법의 이런 쓰임새는 현행에 와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조 불교의식집에 의하면 영산작법이 영산재 외 다른 齋에도 사용된 흔적이 보여서, 이 의식의 사용이 오늘날처럼 영산재에만 국한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또 영산회상의 재현인 영산작법은 내용적으로 영혼천도를 위한 齋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영산작법이 왜 천도의식에 사용되었으며, 齋에서 영산작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한 조명이 필요하다. 영산작법에 관한 이런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靈山作法の 쓰임

조선조 불교의식집을 검토해서, 영산작법이 영산재 외 어떤 재의식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水陸齋

수륙재는 대표적인 영혼천도 의식이다. 그 기원은 505년 중국의 양 무제로부터 시작¹되었고, 한국에서는 고려 광종 21년(970) 葛陽寺에서 처음 베풀어졌다. 이후

¹志磐 撰, 『佛祖統記』 권37, 『大藏經』 권49, 史傳部 1, 348下: “帝嘗夢神僧曰, 六道四生受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조(14세기 말~19세기 말)는 다른 齋는 모두 통제하였지만 유일하게 수륙재는 國行으로 지정²하여 주로 왕족의 천도를 위해 베풀었고, 때로는 국가적 재난이나 求療를 위해서도 지냈다. 종종 10년(1515) 유생들의 반대로 결국 수륙재는 국가적으로 통제되었지만, 수륙재에 사용하는 감로탕이라는 새로운 한국적 양식의 탕화가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제작³된 것으로 보아, 이 의식은 조선후기까지도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에서는 수륙재가 거의 靈駕를 천도하기 위한 절차로만 되어 있고, 영산작법은 사용치 않는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의식집으로 추정되는 『作法節次』에 기록된 다음의 기사는 수륙재에도 영산작법이 쓰였음을 보여준다.

“又靈山會當日莫啼後，設行水陸會，自齋食後始之〔…〕.”⁴

위의 기록은 영산작법이 수륙재에 앞서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의식의 진행 형태는 낮에 영산작법을 하고, 당일 밤부터 수륙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영산재가 낮에 영산작법을 하고, 밤에 각배를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현행과는 달리 예전의 수륙재에는 영산작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豫修齋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佛事를 살아서 미리 하는 의식이다. 즉 출생의 인연에 따라 명부에 갇아야 할 정해진 빚을 佛事를 통해 갚는 의식을 말한다.

예수재 역시 오늘날에는 이 의식에 앞서 영산작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721년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 의하면 3일 동안 재를 지낼 경우 제2일에 영산작법과 예수작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의 기록을 인용해 보겠다.

“次日大靈山作法如儀文，一邊禮懺作法如儀文，劑後預修作法如儀文，施食，是謂二晝夜之禮也.”⁵

苦無量，何不作水陸大齋普齋群靈，帝及披覽藏經創製儀文，三年及成，遂於金山寺修供(양 무제의 꿈에 어떤 선승이 말하기를, 육도사생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으니 수륙재를 베풀어 영혼을 천도하라고 하였다. 이에 양무제는 지장경을 참고하여 3년에 걸쳐 의문을 만들어 금산사에서 공양을 베풀었다).”

²『세종실록』, 세종2년(1420) 9월 24일: “[...] 今革法席，請自今於國行水陸，以上項，諸經分屬七七日〔…〕.”

³『감로탕』, 예경, 1995.

⁴『작법절차』 21a1.

⁵『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十卷仔變文三晝夜作法規’ 項, 卷下 48a. 같은 내용이 같은 책, ‘三卷仔變文三晝夜作法規’ 項(卷下 51a-b)에도 있다.

위의 기록은 예수재법⁶을 하기에 앞서 영산작법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 낮에 영산작법을 하고, 밤부터 예수재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預修齋前作法節次'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다.

“當日莫啼後，一邊法師移運及靈山作法如常，其日，會主拈香及釋題畢，次法衆同誦蓮花經，其餘勸供及祝願如常云。”⁷

위의 사료는 예수재를 하기 전의 의식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영산작법이 밤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영산작법은 예수재에 앞서 간단히 행하는 형태로 보인다. 왜냐하면 영산작법은 이 의식만으로도 하루가 걸리는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齋는 주로 밤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영산작법은 齋의 규모에 따라 신축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산작법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예수재도 이 의식 앞에 영산작법을 먼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영산작법은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산작법은 영산재를 다른 재의식과 변별하는 유일한 요소일 수 없으며, 여러 齋에 두루 사용되는 의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영산작법을 포함하는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의 진행 형태는 낮에 영산작법을 먼저 거행하고, 밤부터 각배재나 수록재, 예수재를 한다. 이처럼 齋가 밤에 시작되는 것은 이들이 영혼천도를 위한 의식이기 때문인데, 이는 유교의 제사나 무속의 오구굿 등이 모 두 밤에 치러진다는 것과 공통적이다.

靈山作法과 齋

법화사상을 근간으로 한 영산회상의 재현인 영산작법과, 來世신앙과 조상숭배를 바탕으로 한 영혼천도 의식인 齋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작법이 齋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다. 영산작법이 법화사상을 근간으로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한국불교의 齋는 염불을 하면 누구나 成佛할 수 있다는 淨土宗 계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의식이 강조된다. 때문에 영혼천도를 필요로 하는 대승은 그들의 염불을 형식화된 齋를 통해 실현한다. 齋는 일반인들의 요청에 의해 三寶(佛·法·僧)에 귀의한 의식 전문 승려가 담당한다. 의뢰를 받은 승려는 영혼이 前生과 現生에 지은 業을 赦하고 來世에 六道衆生⁸으로 환생하지 않고, 깨달음

⁶예수작법은 예수재를 말한다. 한국 불교의식에서 작법은 좁은 의미로는 불교무용이나 단일의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불교의식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⁷『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 卷中 15a와 卷下 16b.

을 얻어 극락왕생하기를 청한다. 깨달음(解脫)은 불교의 근본 교리이자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형상화된 齋에서 영혼의 解脫을 돕는 것은 至高한 佛·菩薩의 설법을 영혼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산작법이 齋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영산작법을 통해 영혼이 그 加被力을 입고 깨달음을 얻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산작법을 齋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영산작법은 齋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의식절차로 간주된다.

영산작법은 영산재의 中禮(각배재) 앞에 위치하고, 수록재나 예수재를 지낼 경우에도 이들 의식에 앞선다. 또 영산작법은 하루가 소요되고 가장 많은 짓소리가 사용된다.⁹ 이처럼 영산작법은 단일의식으로는 가장 길고 복잡한데, 이는 이 의식이 최상위 의식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즉 상·중·하 3단의 분단법에 의해 진행되는 齋는, 상단에는 불·보살을, 중단에는 神衆을, 하단에는 靈駕를 모시기 때문에, 상단의식인 영산작법이 中壇과 下壇 의식인 각배재·수록재·예수재에 항상 앞서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불교의 3단 분단법은 사찰의 佛壇이나 寺院의 배치에서도 보인다. 불단은 상단이 중심에, 중단이 상단 좌측에, 하단이 상단 우측에 위치한다. 또한 사원은 사찰의 가장 중심에 본존불이 있는 대웅전을, 이를 중심으로 금강문·사천왕문·명부전 등을 배치하고, 민간신앙을 수용한 七星閣이나 山神閣을 사원의 뒤쪽 한구석에 배치해서 神들의 위계질서를 나타낸다.

한국 종교의식의 이같은 형태는 巫俗에서도 보인다. 무속은 多神을 대상으로 한다. 神을 청하는 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神은 각각의 거리에 초청된다. 이 때 각 거리의 순서는 神의 높낮이에 따라 정해진다. 때문에 무속의 上位神인 帝釋神을 위한 절차가 앞부분에, 다음으로 中位神인 산신·조상신 등을 위한 절차가, 마지막으로 下位神인 잠신을 위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무의식에서 제석거리는 최상위 神을 모시는 의식인 만큼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영산작법은 영산재에만 있는 유일한 의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문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조에는 영산재 외에도 수록재, 예수재에 공통적으로 영산작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산작법은 영산재를 다른 齋와 구별하는 유일한 요소일 수 없고, 모든 齋를 하기 위해 선행하는 의식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영산작법과 齋는 영산작법이 낮에, 각배재·수록재·예수재가 밤에 진행된다. 齋를 밤에 지내는 것은 유교의 제사나 무속의 오구굿에서도 보인다.

⁸6도란 地獄道·餓鬼道·畜生道·阿修羅道·人道·天道를 말한다.

⁹김법현(웅기), “짓소리 쓰임 연구”, 『불교대학원논총』 제4집, 동국대학교, 1997.

영산작법이 영혼천도를 위한 齋에 포함되는 이유는 불·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영혼이 그 加被力을 입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영산작법이 각 齋의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는 이유는, 한국 불교의식이 상·중·하단으로 신앙적 대상을 계급화하는 질서의식 때문이다. 이같은 질서의식은 불단이나 사원의 배치에서도 보이며, 무의식에서도 보인다.

A Study of *Yōngsan chakpōp*

Chang Hwiju
Seoul National University

Yōngsan chakpōp 靈山作法 is one of the ritual stages included in *chae* 齋, one of the Buddhist ceremonies. *Chae* is a ceremony especially for sending the souls to *nirvana*. *Yōngsan chakpōp* tells a reenactment of the Buddha's sermon given on the Vulture Peak, particularly the sermon of *pōphwa* 法華, a doctrine of Mahayana Buddhism. It has been said that *yōngsan chakpōp* is used only in *yōngsanjae* 靈山齋 among the five different kinds of *chae*.

In this paper, however, I will argue that *yōngsan chakpōp* was also used in other *chaes* besides *yōngsanja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sent-day usage. Also, I will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my own as to why *yōngsan chakpōp* is used in the ritual to send the souls to *nirvana*, and what the meaning and place of *yōngsan chakpōp* in *chae* are.

The usage of *yōngsan chakpōp*

By examining the Buddhist ceremonial documents from the Chosŏn period (late 14th century to late 19th century), I prove that *yōngsan chakpōp* was also used in *suryukchae* 水陸齋 and *yesujae* 豫修齋, as well as in *yōngsanjae* 靈山齋.

Suryukchae

Suryukcha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soul-sending ceremonies among the *chae*. It began in the year 505 by the Chinese emperor Wudi of Liang,¹ and in Korea was first offered in 970 at Karyang Temple. Following the rise

¹Chi Pan, compiler, *Puljo ch'onggi*, vol. 37, *Taejanggyōng*, vol. 49, 348: "In one of the dreams of Liang's Wudi, a monk said, 'Since people endlessly suffer from being reincarnated in life, *suryukchae* should be offered for the escorting of souls to *nirvana*.' Wudi, conferred with the Chijang Bodhisatva sutras,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wrote up a ceremonial book and for the first time offered the ritual at Jinshan Temple.

of Neo-Confucianism and its political influence during the Chosŏn period, all the performances of *chae* was suppressed and restricted except for *suryukchae*, which was allowed for political purposes²: to usher the royal family's souls to *nirvana*, upon the occurrence of a great national disaster, and to relieve them from diseases. In 1515, Neo-Confucian scholars opposed to the performance of *suryukchae*, leading to its prohibition. Even so, *kamnotaeng* 甘露楨 (an altar portrait of the Buddha used in *suryukchae*) continued to be produced from the late 16th century on until the early 20th century,³ which shows that *suryukchae* continued its existence during that time among the common people.

The present-day *suryukchae* is performed almost solely for sending souls to *nirvana*, and does not contain *yŏngsan chakpŏp* in its procedure. However, in ceremonial documents from the late Chosŏn period, the use of *yŏngsan chakpŏp* in *suryukchae* is recorded as follows:

"After finishing *yŏngsan chakpŏp*, *suryukchae* begins in the evening."⁴

The citation shows that *yŏngsan chakpŏp* was performed prior to *suryukchae*. We can also understand that, in this part of the ritual, *yŏngsan chakpŏp* was performed in the daytime, and *suryukchae* began that evening.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suryukchae* of the past was performed differently from nowadays, in that *yŏngsan chakpŏp* was used.

Yesujae

Yesujae is a Buddhist service performed before one's death. This ceremony involves the paying back of one's inborn debts to the underworld in advance, according to his or her *karma*.

In today's performance of *yesujae* as well, *yŏngsan chakpŏp* is not used. However, as written in the 1721's *Ch'ŏnji myŏngyang suryukchaeŭi bŏmŭm sanbojip*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it is revealed that when the ritual continued for three days, *yŏngsan chakpŏp* and *yesu chakpŏp* 豫修作法 were performed.

"On the second day, *yŏngsan chakpŏp* is done, with *yecham chakpŏp* performed at the same time. Following the *chae* ritual, *yesu chakpŏp* is done. This ceremony is done through the day and night of the second day."⁵

²*Sejong shillok*, September 24, 1420.

³*Kamnotaeng*, Yegyŏng, 1995.

⁴*Chakpŏp chŏlcha* 作法節次, 21a1 (date unknown).

⁵*Ch'ŏnji myŏngyang suryukchaeŭi bŏmŭm sanbojip*, vol. 2, 48a.

This citation shows that *yǒngsan chakpǒp* was done prior to *yesu chakpǒp*,⁶ and also that *yǒngsan chakpǒp* was performed in the daytime, while *yesujae* began at night.

In a different section preceding the above citation on *yesujae* is written:

“On the night when *chae* is performed, *pǒpsa i’un* 法師移運 and *yǒngsan chakpǒp* are done. The presider of that day offers incense to Gautama Buddha, while the people present in the temple recite the sutras of *Pǒphwa* 蓮花經.”⁷

The ceremonies done prior to *yesujae* is stated in the above writing, that is, *yǒngsan chakpǒp* began at night. Therefore, *yǒngsan chakpǒp* done before *yesujae* is shown to have been done in a simple form. This is because *yǒngsan chakpǒp* in itself is a ritual that requires a long time to perform, and also because *chae* usually began at night. It can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se facts tha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hae*, *yǒngsan chakpǒp* was just as flexible.

We can understand tha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ale of *yǒngsan chakpǒp*, it was used before the *yesujae* ritual.

In the above examinations, we can come to an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yǒngsanjae*, *suryukchae*, and *yesujae* have one point in common in that they all used *yǒngsan chakpǒp*. The result is that this point in no way can become a ground for differentiating the three rituals from one another. In addition, the form of the two aforementioned rituals that used *yǒngsan chakpǒp* used it in the daytime, and performed *suryukchae* and *yesujae* at night. As the sending of souls to *nirvana* is a ritual which occurs at night, it has a point in common with other ceremonies performed for the dead in both Korean Confucianist ancestral rites and in the *ogu kut* (sending of a soul to paradise) shamanistic ritual.

Yǒngsan chakpǒp and *chae*

Now, I will discuss *yǒngsan chakpǒp* in the context of *chae*.

Yǒngsan chakpǒp, which recalls the sermon given by the Buddha on the Vulture Peak, is based on *Pǒphwa* beliefs. Its object and conten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hae*, in that *chae* is a ceremony of sending souls to *nirvana*,

⁶*Yesu chakpǒp* means *yesujae*. In Korean Buddhist rituals, *chakpǒp*, in its narrower meaning, is a Buddhist dance or a single ceremony, but in its broader meaning refers Buddhist ritual ceremony in general.

⁷*Ch’ŏnji myŏnggyang suryukchae’i pŏm’im sanbojip*, vol. 2, 15a; Vol. 3, 16b.

which is based on a belief in the next world and ancestor worship.

Korean Buddhism is of the Mahayana sect, and that is why *yŏngsan chakpŏp* is based on *Pŏphwa* thought. Because *chae* was developed in the world of the Sukhavati sect of Korean Buddhism where, if one prays to Amitabha, he or she can become a Buddha, ritualism became emphasized. This is why those who required their souls to be ushered to *nirvana* were able to realize their prayer to Amitabha by a formalized *chae*. *Chae* is officiated by professional ceremonial monks who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serving Buddha. A monk is requested to perform *chae* to rid one of his or her *karma* from the past and present lives so that he/she would not be reborn in reincarnation, but awaken to *nirvana*. This deliverance from worldly attachments and existence is the basic doctrine and final goal of Buddhism. This is why *yŏngsan chakpŏp* is included in *chae*. In other words, by way of *yŏngsan chakpŏp*, one's soul can receive inspiration from Buddha by his sermon, awakened, and have an eternal, peaceful death. For the same reason, *yŏngsan chakpŏp* is regard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stage in *chae*.

In *yŏngsanjae*, *yŏngsan chakpŏp* is done before a ritual stage called *chungnye* 中禮, which is also the case with *suryukchae* and *yesujae*. In addition, *yŏngsan chakpŏp* goes from morning until evening and uses the most *chitsori*,⁸ a kind of *pŏmpae* 梵唄 recitation (the most difficult chants used in Buddhist rituals). It is the longest and most complex of ritual stages and is always recited in the first phase of *chae*, which is probably related to the fact that it is the highest among the ritual stages. That is, the five *chaes* are also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levels, that is upper, middle and lower, where various individuals are ushered in. In the upper level are Buddha and Boddhisatvas, in the middle level devas, and in the lower departed spirits of the dead. Looking further, this three-leveled division of ceremonies can also be seen in the altars and temples of Korean Buddhism. The upper altar, where Buddha and the Boddhisatvas are, is located in the center, with the middle altar on the right and the lower on the left. The main building of a temple is in the center of the temple's main ground, with the principle statue of Buddha inside, and the Kŭmgang gate 金剛門, gate of the four devas 四天王門, Hades' altar and other halls around it. In the back corner of the temple is the halls for the Great Bear (constellation) god 七星閣 and the guardian god 山神閣, as a part of the common people's faith. This is all done to place the gods in an orderly classification.

⁸Kim Pŏp-hyŏn, "A study of the usage of *chitsori*," *Pulgyo taehagwŏn nonchong*, vol. 4, Tongguk University, 1997.

This kind of classification in religious ceremonies is also seen in Korean shamanism, which is polytheistic. The inviting in of the gods varies according to region, but each has its own section as invited. The order of each ritual depends on the position a certain god holds (higher through lower). That is why the highest god Chesök (the harvest god) is brought in first, the mid-level mountain god and ancestor's ghosts next, and finally the minor demons. The invitation of Chesök is the longest, most complex, and strictly performed of all the shamanistic rituals.

Conclusion

Up to the present it has been understood that *yǒngsan chakpǒp* was only found in *yǒngsanjae*, but as examined in this writing, we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at during the Chosŏn period, it was used also in *suryukchae* and *yesujae* also, besides in *yǒngsanjae*. As a result, *yǒngsan chakpǒp* in no way can become a ground for differentiating the two rituals from each other. Also, the form of the three aforementioned ceremonies, *yǒngsanjae*, *suryukchae* and *yesujae* that used *yǒngsan chakpǒp*, used it first during the daytime, and performed the other stages of ritual at night under same day. The rituals performed at night are for sending the souls to *nirvana*, and performing these rituals at night has a point in common with other ceremonies performed for the dead in both Korean Confucianist ancestral rites and in the *ogu kut* (sending of a soul to paradise) shamanistic ritual, which are performed at night also.

The reason why *yǒngsan chakpǒp* is included in *chae* is so that one's soul can be inspired by Buddha, awakened and delivered from attachments and worldly existence. In addition, the reason why *yǒngsan chakpǒp* preceded each of the fundamental *chae* ceremonies is because Korean Buddhist rituals are divid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in an orderly classification. This kind of classification can also be seen in Buddhist altars and temple hall arrangements, as well as in Korean shamanism.